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대비 총력

전북자치도교육청, 파업 대응반 운영...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전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6일 이뤄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과 관련해,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각급(학교)기관에 파업 예고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한 전북교육청은 이날 2일부터 분청 각 부

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협의 등을 통해 학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급식분야에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학교 시가지 독서활동 지원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을 개방할 방침이다.

유치원 돌봄과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긴급 연락 체계 유지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파업 당일에는 분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학교급

식 실시 여부 등 신속한 보고 체계를 통해 긴급 사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 인력의 신속한 현장 업무 복귀를 안내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총파업의 여파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협력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유치원장·초등학교장 이음교육 이해력 향상

유·초 이음교육 운영 지원 연수... 내년 118원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유·초 이음교육 운영 지원 교(원)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립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 약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수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기관 확대에 앞서 이음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최일선 경인교육대 교수의 유·초 이음교육의 이해 및 교육공동체 협력 강의 △2025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사업 안내 △기타 유아교육 정책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는 5세 2학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전 부모교육, 놀이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 교과 연계, 법규와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취학 전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기관을 118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59개원에서 운영 중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초 이음교육은 조기 사교육에 대응하는 위한 방안”이라며 “학령기 학력신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교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이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 6일 파업 공식 선언

전북학교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지 규탄”

전국 초·중·고 급식과 돌봄 등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연대체가 6일 하루 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개별 노조 파업 선포에 이어 교육부 농성·연행으로 당국과 대립각을 더 세우는 모습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

의)는 3일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일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이 임박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급식과 대체인력 확보를 지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6일 전국 곳곳에서 파업 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3일 전북학교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이 전북자치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지하는 교육부 등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6개 연구실,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환경복원공학연구실 등... 안전관리 수준 점검·개선 노력



전북대학교 6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양오봉 총장과 연구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대학교 6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선정 시상식에서 양오봉 총장과 연구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대학교 6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관리 우수대학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선정된 연구실은 환경복원공학연구실(연구책임 백기태 교수), 농업환경독성학연구실(연구책임 박민구 교수), 식물유전육종학연구실(연구책임 모영준 교수), 식물분류병해연구실(연구책임 최인영 교수), 수의전염병학연구실(연구책임 엄재구 교수), 예방치화연구실(연구책임 김동업 교수) 등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구실 환경, 장비 관리, 안전 교육·훈련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전북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본부가 안전관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구실의 안전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대학의 안전 중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 학교장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전주 치명자산상산지 평화의 전당에서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 추진을 위한 학교장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조벽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해 '바른 인성이 곧 실력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일반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내년에는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 추진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인성교육 요소가 반영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 팽톡 활용 수업 ‘최우수’

군산 문창초 송진아 교사, 공모서 수상... 도내 첫 사례

군산 문창초등학교 송진아 교사(사진)가 2024년 AI 팽톡 활용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반 영어 대화형 영어학습 프로그램(AI 팽톡)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발굴해 초등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국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을 선정하는 가운데 이번 전북에서 처음으로 최우수상 수상자가 나왔다. 시상식은 오는 5일 EBS 공감 스페이스홀에서 열린다.

송진아 교사의 수상으로 문창초에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팽톡 존이 설치된다.

AI 팽톡 존은 AI 팽톡을 활용한 대화형 체험 학습 공간으로, 학생과 교사가 직접 경험하고 수업 시간 또는 자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AI 팽톡을 활용한 수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지역별 EBS 콘텐츠 연수를 교



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초등 영어학습 프로그램 및 알파벳 파닉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AI 기반 영어 플랫폼 활용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원 외국어 수업능력 향상 수, 원어민 화상영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 교육 여건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영어수업 활용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SW·AI교육, 에듀테크 활용 교육 실천

삼기초 이대혁 교사,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익산 삼기초등학교 이대혁 교사가 2024년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정보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정보교육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올해 전북에서는 이 교사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이대혁 교사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SW·AI교육,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의 정보교육

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 등 정보교육의 기본 개념을 탄탄히 익히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과 탐구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이 교사는 정보교육이 단순한 기술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과 의견 공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왔다.

이대혁 교사는 “정보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수상이 정보교육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교원양성대학 4개교는 최근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을 방문해 공동 교육실습과 한국어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교원양성대학교, 시드니·오kland 한국교육원과 MOU

전주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교원양성대학 4개교는 최근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과 오kland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공동 교육실습과 한국어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전주교대 등 교원양성대학 4개교의 예비교사들은 2025학년도부터 호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공동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뉴질랜드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 멘토링 및 현지인 대상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4개 교원양성대학교 총장단은

방문 기간 중 호주 현지 학교(Parramatta Public School), Western Sydney University, 그리고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를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양성대학으로서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비 교사들이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